

나주시, 가을빛 물든 생활체육 열기... 스포츠 행사 잇따라

인라인, 배구, 마라톤, 테니스 등 지역 곳곳에서 활력의 무대 펼쳐져 스포츠로 하나 된 가을, 나주가 생활체육으로 달리고 뛰고 어울린다

전라남도 나주시가 가을 정취와 함께 시민의 건강과 화합을 더하는 다양한 체육 행사를 잇달아 열며 '생활체육 중심도시'의 면모를 선보였다.

10일 나주시(시장 윤병태)에 따르면 지난 8일부터 9일까지 이틀간 전국 남녀 중별 인라인 스피드대회, 나주시장기 궁도대회, 나주시배구협회장배 중·고교 배구대회, 나주시장기 직장 및 클럽대학 테니스대회, 전국 나주 금성산 숲길 마라톤 대회를 연이어 개최하며 나주시 일대가 시민과 전국 선수단이 함께하는 스포츠 축제의 열기로 물들었다.

■ 전국 인라인 스피드대회...500명 선수의 질주

지난 8일부터 11일까지 나주종합스포츠파크 인라인경기장에서 열린 '제44회 전국 남녀 중별 인라인 스피드대회'는 전국 500여 명의 선수가 참가한 가운데 4일간의 열전에 돌입했다.

대한롤러스포츠연맹 주최하고 전라남도롤러스포츠연맹이 주관한 이번 대회는 스피드(트랙) 단일 종목으로 12세 이하부터 일반부까지 총 5개 부문 경기가 진행됐다.

■ '백발백중'을 위한 궁도 동호인들의 화합

지난 8일 나주종합스포츠파크 내 국극장에서 '2025년 나주시장기 궁도대회'가 열려 지역 궁도 동호인 100여 명이 참가했으며 개인전과 단체전을 통해 기량을 겨뤘다.

궁도란 활을 쏘는 기술로 정신 수양과 예의, 집중력을 중시하는 전통 무예로 각

자의 활쏘기 실력을 겨루는 전통 무예 경기다.

나주시궁도협회 박광춘 회장은 "참가 선수들의 기량 향상뿐만 아니라 시민들에게 궁도의 매력을 알리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윤병태 시장은 인사말을 통해 "대한민국 궁도는 올림픽 양궁 10관왕의 위업을 달성할 만큼 우리 전통 무예의 자부심이다"며 "승패를 넘어 서로를 존중하고 교류하는 화합의 장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청소년 배구 꿈나무들의 열정 가득

같은 날 '제2회 나주시배구협회장배 중·고교 배구대회'가 반디비체육센터와 종합스포츠파크 생활체육관에서 열렸다.

나주시배구협회(회장 라두현)가 주관한 이번 대회에는 지역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 18개 팀, 250여 명의 학생이 참가해 팀워크와 기술을 겨루며 청소년 배구의 미래 가능성을 보여줬다.

대회 개최식에는 윤병태 나주시장, 이재남 나주시의회 의장, 변정민 전라남도 나주교육지원청 교육장 등 주요 인사들이 참석해 축하와 격려를 아끼지 않았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개최식에서 "학생 선수들의 기량 향상뿐 아니라 배구를 사랑하는 청소년들의 꿈과 열정을 키우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 금성산 자락 달린 마라톤을

지난 9일에는 동신대학교 일원에서 '제23회 전국 나주 금성산 숲길 마라톤대회'가 성황리에 열렸다.



지난 8일 나주종합스포츠파크 인라인경기장에서 제44회 전국 남녀 중별 인라인 스피드대회가 개최돼 4일간의 열전에 돌입했다.

나주시육상연맹과 나주마라톤동호회가 공동 주관한 이번 대회는 하프, 11km, 6km 등 세 코스로 구성돼 전국 각지의 마라톤 동호인들이 참여했다.

참가자들은 금성산 자락의 가을 정취를 만끽하며 완주하는 성취감과 함께 나주의 자연경관을 즐겼다.

윤병태 시장은 "전국 각지에서 나주를 찾아온 선수단과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 드린다"며 "스포츠를 통해 화합하고 성장하는 나주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 직장, 클럽 테니스인들의 친선 한마당

같은 날 남산시립테니스장에서 '제22회 나주시장기 직장 및 클럽대학 테니스대회'가 개최됐다.

나주시테니스협회(회장 임숙현) 주관으로 열린 대회에는 200여 명의 회원이 참가해 직장 및 클럽 간 친선경기를 펼쳤다.

참가자들은 갈고뒹은 기량을 뽐내며

시민 간 화합과 교류의 장을 만들었다.

개회식에는 윤병태 나주시장, 신정훈 국회의원, 이재남 나주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관계자와 회원들이 참석해 대회의 시작을 축하했다.

윤병태 시장은 축사에서 "나주시의 테니스 열기가 해마다 높아지고 있다"며 "생활체육이 시민의 일상이 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 스포츠로 하나 되는 도시, 나주

나주시는 올해만 해도 다양한 종목의 전국·생활체육대회를 연이어 개최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 참여 확대에 기여하고 있다.

특히 오는 11~12월에는 전국 및 도 단위 행사로는 '제7회 나주시장배 전국 줄다리기 최강전', '나주시장배 호남의병 검도대회', '나주 페어컵 배드민턴대회'와 관내 생활체육대회로는 '나주시장배 줄넘기대회', '나주시장기 게이트볼대회', '나주시장기 배구대회', '나주시장기 볼



윤병태 시장이 지난 8일 나주종합스포츠파크 내 국극장에서 열린 '2025년 나주시장기 궁도대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지난 8일 반디비체육센터와 종합스포츠파크 생활체육관에서 제2회 나주시배구협회장배 중·고교 배구대회가 열렸다.

링대회' 등 다채로운 체육 행사가 예정돼 있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시민 모두가 스포츠를 통해 하나 되는 건강한 도시를 만들

겠다"며 "생활체육 활성화를 통해 나주가 명실상부한 '스포츠 메카 도시'로 자리매김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나주이명열 기자

국제자동차경주장서 2025 댕댕이 F1트랙 운동회

15일 반려견·보호자 함께 F1트랙 달리는 이색 이벤트

행복한 동행 강연·행동 클리닉·목장견 원반쇼 등 다채

전라남도 국제자동차경주장 관리운영을 맡은 ㈜코리아모빌리티그룹이 오는 15일 반려문화 확산을 위해 반려견과 함께 F1트랙을 달리는 '2025 댕댕이 F1트랙 운동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메인 이벤트인 '댕댕이 F1 마라톤'은 5.615km 풀코스를 참가자와 반려견이 한 팀을 이뤄 1시간 30분 동안 트랙을 걷거나 뛰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시간 내 완주한 모든 참가자에게 완주 메달이 수여되며 성

적 우수자에게는 1~3위 순위별 트로피와 지역화폐 상품권이 제공된다.

참가비는 1팀당 2만 원으로 반려견은 체중 2kg 이상 25kg까지 참가할 수 있다. 다만 맹견 등 일부 견종은 참가가 제한된다. 경주는 만 15세 이상으로 반려견을 통제할 수 있어야 하며 가족이나 친구 등 최대 3명이 걸러리로 동반할 수 있다.

행사 현장에서는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

이 함께 진행된다. 국내 최고 프리스비 전문가인 이버금 진행자가 선보이는 '프리스비 쇼'가 펼쳐지며, '우리 개도 되게' 트레이닝 프로그램으로 참가자가 반려견의 사회성과 훈련 능력을 배우는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반려견과 함께 참여할 수 있는 100미터 달리기와 높이뛰기 대회가 열리며, 이벤트 우승자에게는 다양한 반려용품과 상품이 증정된다. '나와 반려견의 행복한 동행'을 주제로 한 전문 강연도 진행돼 반려문화의 올바른 이해와 건강한 반려 생

활에 대한 통찰을 나눌 예정이다.

성정민 ㈜코리아모빌리티그룹 대표는 "이번 대회는 세계적 수준의 F1서킷을 배경으로 반려가족이 함께 즐기는 참여형 문화축제"라며 "모터스포츠를 넘어 가족과 반려동물이 함께 즐길 복합 문화공간으로 탈바꿈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일정은 국제자동차경주장 누리집(<https://koreacircuit.kr>)이나 인스타그램(www.instagram.com/kic.official_korea)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명수 기자



김

전복

대파

올금

농수산물

진도것이 최고지라~

진도아리랑물